

GIST-신용보증기금, 상호협력 MOU 체결

혁신기술의 확산과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 12월 2일(월) GIST 행정동에서 임기철 총장, 최원목 이사장 등 관계자 참석... 혁신기술의 확산 및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연계사업 적극 추진 약속
- 임기철 총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방화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기를 소망"
- 최원목 이사장, "호남권 기업들이 GIST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창출 기대"



▲ GIST와 신용보증기금이 혁신기술의 확산과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여주상 지스트 홀딩스 대표이사, 김민곤 과학기술혁신사업단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임기철 총장,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 호남영업본부 김승관 본부장, 4.0창업부 임효진 부장, 광주스타트업지점 김덕곤 지점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신용보증기금(KODIT, 이사장 최원목)과 **혁신기술의 확산과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2월 2일(월) GIST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대외협력처장, 김민곤 과학기술혁신사업단장, 여주상 지스트 홀딩스 대표이사과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 호남영업본부 김승관 본부장, 4.0창업부 임효진 부장, 광주스타트업지점 김덕곤 지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IST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GIST의 혁신 기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 지원 전문성을 결합**하여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GIST는 혁신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가 추천하는 기업에 기술지도를 통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GIST 관련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및 비금융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GIST 교원·학생창업기업 및 기술이전기업 보증연계투자 대상 추천 ▲신보 추천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지원 ▲신보와 혁신기술의 확산 및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적극 추진 ▲GIST가 개발한 혁신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거나 이전받은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기술이전 후 추가 연구개발(R&BD)·사업화 보증 등 금융지원 ▲GIST 추천 교원·학생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 지원 ▲GIST 추천 기업의 복합수요 충족을 위해 맞춤형 솔루션 'INNOVATION1' 지원 ▲GIST와 혁신기술의 확산 및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적극 추진 등 크게 7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 GIST와 신용보증기금이 혁신기술의 확산과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왼쪽부터) GIST 임기철 총장과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기철 GIST 총장은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지역과 함께 혁신 경제를 선도하자는 비전을 내세운 GIST는 지향하는 바가 서로 통했다”고 말하며, “지방소멸 현상을 극복하고 신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방화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권 기업들이 GIST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우수 공공기술의 민간 확산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